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Vol. 16, No. 3, 331-355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나 선 영 안 명 희†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친밀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20·30대 성인초기 여성 내담자들 상당수가 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도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직접경로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과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추가로 애착관련 경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그리고 성인애착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20~30대 후반 성인여성 278명의 자료를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세대 간 전수되는 과정은 부와의 유대와 모와의 유대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결혼여부와 자녀유무는 성인애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부모와의 갈등상황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 애인 혹은 배우자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영향을 중재하려는 상담 전략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친밀한 이성관계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그리고 분노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두기를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기반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결혼과 자녀출생이 성인여성의 애착패턴의 활성화와 전수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 탐색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성인애착 연구를 20~30대 후반 여성으로 확장한 의의도 있다.

주요어 : 부모유대,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이성관계

---

* 본 연구는 나선영(2011)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E-mail : christine@sogang.ac.kr

www.kci.go.kr

상담 장면에 의뢰되는 성인초기 여성 내담자의 경우 친밀한 이성과의 관계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현재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접근은 초기 관계에서의 심리적 상처에 대한 공감과 통찰을 꾀하고, 현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사고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현실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특히 갈등상황에서의 정서조율 능력 등과 같은 전반적인 자아기능 증진을 도모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을 돕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유도하는 다각적 노력이 포함된다. 부모와의 유대와 성인기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한 관련 경험연구들(Berman & Sperling, 1994; Kobak & Cole, 1994; Rothbard & Shaver, 1994) 역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의 자아정체감, 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인관계(신미, 2006; 정윤경, 2004; Hoffman & Weisse, 1987; Lapsley & Edgerton, 2002)의 관련성을 보고한다. 하지만 임상장면에서 보고되는 충분히 좋지 않은 초기 양육경험이 이성과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의 문제 혹은 자녀를 둔 경우 양육자로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초기 대상관계와 개인의 성격 및 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인 애착 관련 연구 중에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그 이후 시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질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로로 성인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Cook, 2000; 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으로, 개인의 애착관련 내적 작동모델이 가동되는 구체적인 경로는 매우 복잡하며, 대상에 따라 애착의 전수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Cook, 2000; Lewis, Feiring, & Rosenhal, 2000).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조화진, 서영석, 2010)는 이와 같이 애착의 세대 간 전수가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이에 관여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상담은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한 정서적 어려움이 현재 대인관계 문제로 전이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재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담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탐색에 대상의 연령, 발달단계, 성별, 결혼여부 혹은 자녀유무와 같은 구체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인기 초기는 남녀 모두에게 친밀한 이성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핵심 발달과제이며, 원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사랑, 결혼, 자녀양육 등의 발달적 과업의 수행과정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현

www.kci.go.kr

실적 제약과 부담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의 활성화 경험 혹은 이성과의 만족도에 대한 도전 역시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성과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다(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정윤경, 김재엽, 2005). 또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성인의 결혼만족도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이선미, 전귀연, 2005; 장휘숙, 이영주, 2007).

하지만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인애착 관련연구들이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시기 이후인 20대 후반에서 기혼자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에 해당되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 배우자와의 성인애착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예상되는 30대 후반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애착의 세대 간 전수과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유대와 성인애착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그중 “생애 초기의 영아와 부모 사이 정서적 유대관계를 넘어, 전 생애 동안 중요한 타인과 형성하게 되는 정서적 결합”인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Cassidy, 2001).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인 애착이 이후의 대인관계 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연구 결과들의 보고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해 왔다(강진경, 2001;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조영주, 최해림, 2001; Bowlby, 1988; Cassidy, 2001; Rice, Lopez, & Vergara, 2005).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부모 양육태도의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들도 자녀에 대한 애정적 돌봄은 높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훈육적 통제가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자녀의 건강한 적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안명희, 2010). 이와 같은 양육태도는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부모의 순응성(responsiveness)과 접근성(accessibility), 즉 유효성(availability)을 높이기 때문에 이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반응에 대한 조절 능력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달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정서적 돌봄과 훈육으로 정의되는 초기 부모-자녀관계는 정서조절 능력이 내재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Fonagy와 동료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은 초기대상관계를 자기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mentalization)’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즉 애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한 표상적 체계, 즉 정신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부모의 정서적 돌봄의 수준은 아이의 잠재적인 정신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정신화 능력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정서경험의 의미를 그 과정 중에 의식화할 수 있는 일종의 상위 정서조절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찰능력은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진 혹은 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원부모

www.kci.go.kr

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일지라도 정신화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정서적 돌봄과 훈육적 역할을 제공해야 하는 자신의 자녀와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즉 정신화 능력은 아동기의 불안정 애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불안정 애착이 세대를 넘어 전이될 가능성을 줄이는 보호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Wallin, 2007). 상담 장면에서 초기 부모-자녀관계로 고통받는 내담자에게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정적 정서체험을 가능케 하고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애착은 개인이 현재의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관련 사고, 정서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친밀감의 추구, 분리와 거부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거부와 버림받음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정서적 각성 수준을 반영한다(Cassidy & Shaver, 2008).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애착관련 사고에 대한 집착의 정도를 불안애착으로, 친밀감에 대한 회피, 애착욕구충족의 대상으로서 타인의 존재와 필요에 대한 부인 정도를 회피애착으로 분류(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Mikulincer & Shaver, 2008)하는 경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집착과 몰입 그리고 친밀한 대상과의 근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애착관련 사고나 정서에 과도하게 방어적이다. 이 때문에 친밀감, 자기개방, 자신의 정서적 취약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표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자제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안명희, 2010). 부모의 돌봄과 통제의 측면으로 본 초기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성인애착관련 연구는 부모의 애정적 돌봄이 높고 적절한 통제가 안정적인 성인애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이윤영, 전효정, 2009; 조화진, 서영석, 2010).

하지만 대부분의 애착관련 연구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적다. 특히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애착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애정적 돌봄과 통제가 각각 이성과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의 차원에서 분류하여 그 차이를 본 경우는 더욱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성인초기 여성의 부모와의 유대가 배우자 혹은 친밀한 이성과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로 각각 분류하고 성인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하여 초기 부모대상과의 부정적 유대감이 성인애착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반적인 자기조절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성찰능력이라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갈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지목하여 그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애착

초기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개인의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대처 방식 등의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들

www.kci.go.kr

변인을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변인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최근 상담 장면에서도 부적응의 원인요인보다는 현재 발휘되거나 혹은 잠재된 적응탄력성 혹은 개인적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관심이 높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핵심 변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혹은 분노조절 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Block과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 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뒤를 이었다(장경문, 2003; 이수현, 최해림, 2007; 권혜진, 2006; 허정선, 현명호, 2005; 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이성관계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성으로부터의 정서적 거부나 버려짐에 대해 불안이 적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정서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정서경험에 대한 정신화 혹은 성찰능력이 높은 반면에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정서반응에 대한 과잉 활성화나 억제와 같은 정서조율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련 경험연구들도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다(권혜진, 2006; 이은미, 박인전, 2002; 장경문, 2003; 장진아, 신희천, 2006; 허정선, 현명호, 2005; Sroufe, Carlson & Sc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Herman-Stahl & Petersen, 1996). 자아탄력성은 또래관계나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다고도 보고된다(양수진, 2010; 정애리, 유순화, 2008). 청소년의 낙관적 태도는 부모와의 애착에 영향(김영혜, 이지연, 김낭영, 2009)을 받고, 청소년의 분노조절 능력도 부모, 친구와의 애착과 관련성(이미리, 2009)이 있다고 보고된다. 성인애착이 낙관적 태도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이지연, 임성문, 2006)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부모유대, 자아탄력성, 그리고 성인애착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돌봄과 훈육적 통제로 정의한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Hoffman(1984)은 성인의 건강한 적응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를 맺고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라 정의(Josselson, 1988)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인기 자아정체감 획득의 선제 조건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에 대한 과도한 분노, 죄책감, 불신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정의되는 부모와의 갈등적 관계에 대한 심리적 독립(Hoffman, 1984)이 성인애착의 질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된다. 즉,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타인에 대한 불신, 친밀한 관계에서의 거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전

www.kci.go.kr

반적인 부적절감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도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초기 성인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인 행동능력의 발달은 심리적 성숙, 자아의 자율성 발달, 최적의 적응 능력의 발달, 안정적 애착 등을 촉진한다고 보고한다(송순, 박효인, 2006; 신미, 2006; 정윤경, 2004; Berman & Sperling, 1994; Kobak & Cole, 1994; Rothbard & Shaver, 1994). 이는 반대로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얻지 못하면, 성인으로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초기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관계의 반성적 능력(reflective functioning)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자기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Fonagy 외, 2002)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정신화 능력이 아동기의 불안정 애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불안정 애착이 세대를 넘어 전이될 가능성을 줄이는 보호요인이라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애착관련 정서경험과 관련된 정신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자녀관계 혹은 갈등 그 자체로부터 정서적 자율성을 획득하여 심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입전략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성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을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임상관찰과 관련연구결과를 토대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 능력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성인초기 여성과 결혼

Miller와 Patricia(2002)는 성인초기의 핵심 발달과업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라 보고 특히 이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혼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이경성, 한덕웅, 2003). 원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도 아내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남편의 원가족과의 경험보다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한다(Sabatelli & Bartle-Haring, 2003).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에 남, 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데(Barnett & Shen, 1997; Story, Berg, Smith, Beveridge, Henry & Pearce, 2007), 여성의 결혼만족도 감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혼만족도에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는 자녀의 출생 후 늘어나는 집안일과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경우 즉, 양육 스트레스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아 초래되는 현상이라고 보고한다(Barnett & Shen, 1997). 이처럼 결혼과 자녀출생 등의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양육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적 역할 수행과정에 애착관련 사

www.kci.go.kr

고와 정서체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부모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영향을 성인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애착의 심리적 기제가 결혼, 출산과 같은 중요한 발달의 결정적 요인들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들에 의해 활성화 혹은 전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관련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이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이성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이 핵심 발달과제이며, 우리사회에서 결혼적령기이거나 결혼생활의 초기에 해당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그리고 이성과의 성인애착이 어떤 구체적인 경로로 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와의 애착패턴의 대물림 현상이 자녀 양육의 경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여 이와 같은 과정에 결혼과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밝히면 부모와의 유대가 원만하지 못한 여성이 불안정한 대상관계 패턴을 대물림하지 않고 배우자 혹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자료는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역기능적 유대관계와 이성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임상관찰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조모형과 부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유대를 부와 모의 유대로 각각 나누어 부와 모와의 정서적 돌봄과 과보호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으로 측정한 성인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와 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그리고 분노조절 능력으로 측정한 자아탄력성과 부모에 대한 분노, 죄책감,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로 평가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각각 고취시켜 (불안정)성인애착을 감소시키는 모형(모형 1)과 부와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모형 2)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추가로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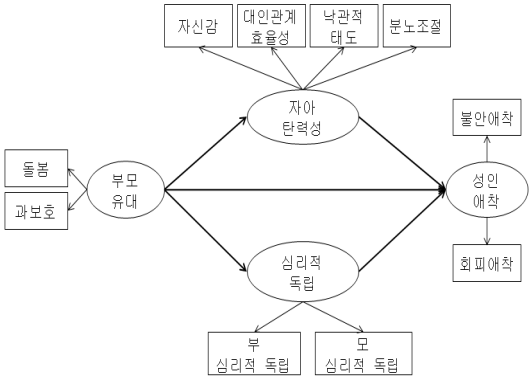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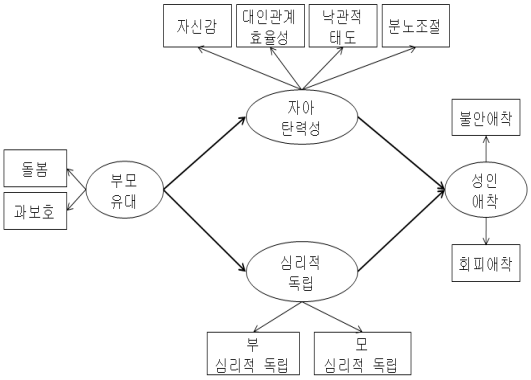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2011년 4월 18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6세~39세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중 이성과의 연애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 3부와 회수되지 않은 19부, 무성의한 설문 2부를 제외하여 최종 278명의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자녀유무에 따른 분포는 26세~30세 136명(48.9%), 31세~35세 86명(30.9%), 36세~39세 56명(20.1%)으로 이중 미혼은 154명(55.4%), 기혼은 124명(44.6%)이었다.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47명(37.9%), 자녀가 있는 경우는 77명(62.1%)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간접지표로 활용한 직업군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직 73명(26.3%), 공무원 54명(19.4%), 전문직 51명(18.3%), 대학원생 44명(15.8%), 기타 21명(7.6%), 전업주부 18명(6.5%), 서비스직 12명(4.3%), 자영업 4명(1.4%), 그리고 관리직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학력과 경제수준은 평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일하는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측정도구

부모와의 유대

본 연구는 부모와의 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1979)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부모와 자녀의 결합형태 검사(Parent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결합형태 검사(PBI)는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하여, 애정적 차원을 측정하는 돌봄 척도 12개 문항과 과잉통제 및 제한차원을 측정하는 과보호 척도 13개 문항의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각 문항 형식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적 돌봄과 적절한 통제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www.kci.go.kr

연구에서는 부와의 유대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 모와의 유대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왔다.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로서, 원래는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다. Klohen(1966)은 도구를 보완하여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보완된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안한 한국판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ER)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의 요인이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왔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이 제작하고 김은희(1993)가 번역한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며, 각 56문항씩 총 112문항으로,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부모에 대한 분노, 죄책감,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정의되는 갈등적 독립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반영하는 조작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심리적 독립 척도(PSI)의 갈등적 독립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Hoffman(1984)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89,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신뢰도가 각각 .89, .90으로 나왔다.

성인애착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Fraley, Waller, 그리고 Brennan(2000)이 개발한 수정된 친밀관계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S-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친밀관계경험 척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1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불안의 정도, 회피애착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에 대하여 불편한 정도를 나타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 애착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Brenna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총 1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사-재검사한 신뢰도가 불안애착 .93, 회피애착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각 .91과 .92로 나왔다.

자료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신뢰도, 결혼여부,

www.kci.go.kr

그리고 기혼여성 중 자녀의 유무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고 효과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이성과의 성인애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와의 유대와 자아탄력성(r=.48**),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r=.68**)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와의 유대와 성인애착(r=-.37**)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아탄력성과 부모와의 유대의 상관은 부(r=.45**)와 모(r=.44**) 각각 자아탄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부와의 유대는 모와의 유대보다 낙관적 태도(r=.38**)와 분노조절(r=.32**)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모와의 유대는 부와의 유대보다 자신감(r=.44**)과 대인관계 효율성(r=.35**)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표로

표 1. 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1-1	1-11	1-12	1-2	1-21	1-22	2	2-1	2-2	2-3	2-4	3	3-1	3-2	4	4-1	4-2
1	-																	
1-1	.94**	-																
1-11	.78**	.87**	-															
1-12	.81**	.81**	.42**	-														
1-2	.94**	.77**	.59**	.71**	-													
1-21	.81**	.65**	.67**	.40**	.88**	-												
1-22	.80**	.67**	.32**	.85**	.84**	.47**	-											
2	.48**	.45**	.35**	.41**	.44**	.33**	.43**	-										
2-1	.46**	.42**	.31**	.41**	.44**	.32**	.44**	.92**	-									
2-2	.37**	.34**	.25**	.34**	.35**	.24**	.37**	.84**	.72**	-								
2-3	.40**	.38**	.33**	.31**	.37**	.31**	.33**	.86**	.71**	.54**	-							
2-4	.30**	.32**	.26**	.28**	.24**	.19**	.22**	.50**	.42**	.27**	.38**	-						
3	.68**	.62**	.51**	.54**	.65**	.56**	.55**	.49**	.47**	.37**	.43**	.29**	-					
3-1	.63**	.63**	.53**	.54**	.56**	.48**	.48**	.46**	.44**	.34**	.40**	.30**	.97**	-				
3-2	.67**	.57**	.47**	.50**	.69**	.61**	.58**	.48**	.46**	.37**	.42**	.27**	.97**	.88**	-			
4	-.37**	-.31**	-.29**	-.22**	-.39**	-.38**	-.29**	-.52**	-.45**	-.40**	-.52**	-.18**	-.41**	-.37**	-.42**	-		
4-1	-.34**	-.28**	-.25**	-.22**	-.35**	-.30**	-.30**	-.52**	-.47**	-.39**	-.52**	-.20**	-.47**	-.44**	-.48**	.86**	-	
4-2	-.30**	-.24**	-.25**	-.15*	-.32**	-.35**	-.20**	-.37**	-.30**	-.30**	-.38**	-.12*	-.24**	-.20**	-.25**	.86**	.47**	-
M	3.74	3.67	3.59	3.75	3.80	3.86	3.75	3.61	3.68	3.45	3.78	3.12	3.50	3.49	3.51	2.32	2.37	2.26
SD	.58	.60	.81	.63	.63	.80	.66	.56	.61	.73	.61	.91	.63	.64	.66	.56	.65	.65

주. 1. 부모 유대 1-1. 부 유대 1-11. 부 돌봄 12. 부 과보호 1-2. 모 유대 1-21. 모 돌봄 1-22. 모 과보호 2. 자아탄력성 2-1. 자신감 2-2. 대인관계 효율성 2-3. 낙관적 태도 2-4. 분노조절 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3-1.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3-2.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4. 성인애착 4-1. 불안애착 4-2. 회피애착. N=278. * p<.05, ** p<.01.

www.kci.go.kr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와 모의 유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애정적 돌봄이 아버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t=-7.00**). 둘째, 부(r=.62**)와 모(r=.65**)와의 유대는 각각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부(r=-.31**)와 모(r=-.39**)와의 유대는 각각 성인애착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r=-.52**)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졌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성인애착 수준이 감소하였는데 자신감(r=-.45**), 대인관계 효율성(r=-.40**), 낙관적 태도(r=-.52**), 분노조절(r=-.18**) 모두 성인애착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r=.49**)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져 자신감(r=.47**), 대인관계 효율성(r=.37**), 낙관적 태도(r=.43**), 분노조절(r=.29**)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애착(r= -.4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져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r=-.37**),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r=-.42**)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직접경로로,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경로로도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연구모형 1과 부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 1의 적합도(χ^2 (df=29, N=278) =48.04, p<.01, GFI=.97; TLI=.98; CFI=.99, RMSEA=.05)와 연구모형 2의 적합도(χ^2 (df=30, N=278) =50.80, p<.01, GFI=.96; TLI=.98; CFI=.98, RMSEA=.05)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하지만 연구모형 1에서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에서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는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두 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triangle\chi^2$ (1) =2.76, p > .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모형 1에서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고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모수의 수가 적어 더 간명한 매개모형인 연구모형 2를 본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4와 표 3, 4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그림 4의 매개모형(연구모형 2)을 살펴보면, 부와의 유대는 자아탄력성(β=.61, t=7.58***)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β=.85, t=8.84***).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β=-.44, t=-5.89***), 그리고 부모

표 2. 부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 1	48.04	29	.97	.98	.99	.05(.022～.072)
연구모형 2	50.80	30	.96	.98	.98	.05(.024～.07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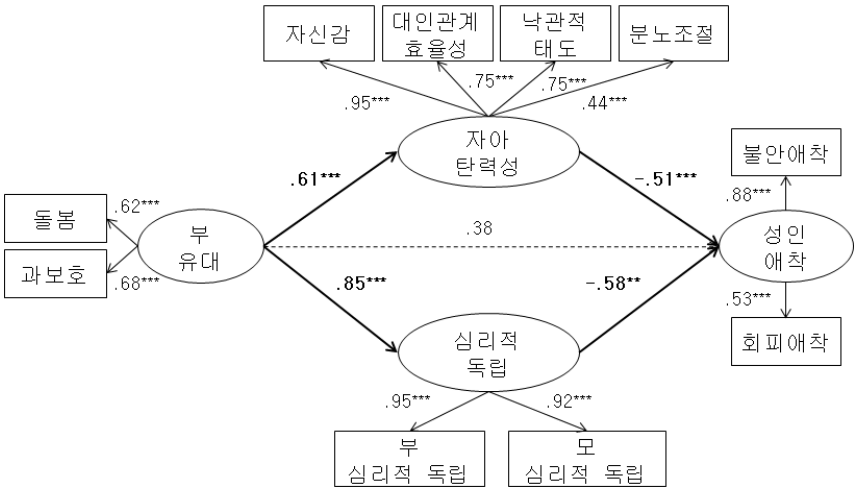

그림 3. 부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연구모형 1). 주. ** p<.01, *** p<.001.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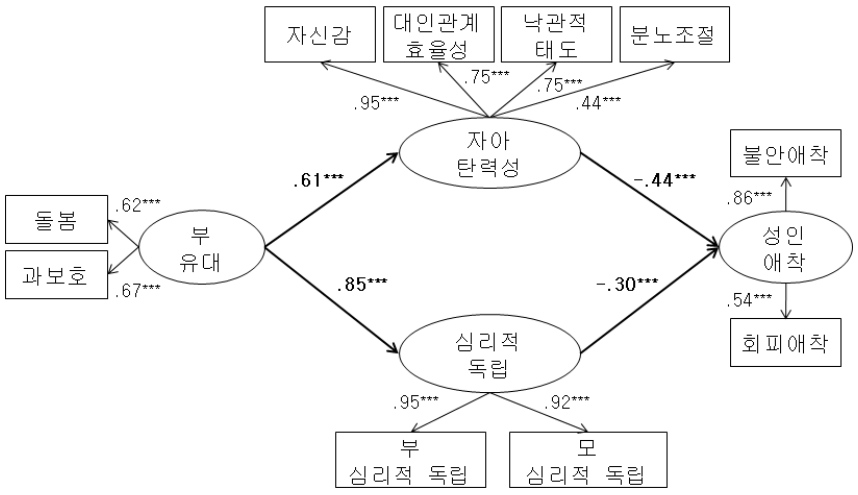

그림 4. 부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연구모형 2). 주. *** p<.001.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증가할수록(β=-.30, t=-4.32***) (불안정)성인애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부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41, 부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37, 부와의 유대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72로 나타났다.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는 간접효과와 전체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www.kci.go.kr

표 3. 부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모형	경 로	B	β	S.E.	C.R.(t)
연구모형 1	부와의 유대 → 성인애착	.43	.38	.27	1.60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51	-.51	.09	-5.67***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55	-.58	.18	-3.02**
	부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70	.61	.09	7.56***
	부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1.03	.85	.12	8.80***
연구모형 2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2	-.44	.07	-.5.89***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28	-.30	.06	-4.32***
	부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70	.61	.09	7.58***
	부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1.02	.85	.12	8.84***

주. N=278. ** p<.01, *** p<.001.

표 4. 연구모형 1, 2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모형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연구모형 1	부와의 유대 → 성인애착	.38	-.80	-.42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51		-.51	.44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58		-.58	
	부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61		.61	.37
	부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5		.85	.72
연구모형 2	부와의 유대 → 성인애착		-.52	-.52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4		-.44	.41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30		-.30	
	부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61		.61	.37
	부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5		.85	.72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여 표 3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구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매개모형인 연구모형 2에서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며, 부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52로 자아탄력성이 성인애착으로 가는 전체효과 -.44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으로 가는 전체효과 -.30보다 크기 때문에 부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www.kci.go.kr

직접경로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한 통합모형을 연구모형 3으로 가정하고, 대안모형인 매개모형(연구모형 4)과 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 3의 적합도(χ^2 (df=28, N=278) =38.10, p<.01; GFI=.97; TLI=.99, CFI=.99, RMSEA=.04)가 양호한 편으로 나왔으나 모와의 유대에서 성인애착으로의 직접경로 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인 연구모형 4의 경우 그 적합도(χ^2 (df=29, N=278) = 38.20, p<.01, GFI=.97; TLI=.99; CFI=.99, RMSEA=.03)가 양호하였으며 가정한 모든 경로도 유의하게 나왔다.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triangle\chi^2$ (1) =0.1, p > .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모형 3에서 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고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모수의 수가 적어 더 간명한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인 연구모형 4를 본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6과 표 6, 7에 제시하였다.

표 5. 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 3	38.10	28	.97	.99	.99	.04(.000～.063)
연구모형 4	38.20	29	.97	.99	.99	.03(.000～.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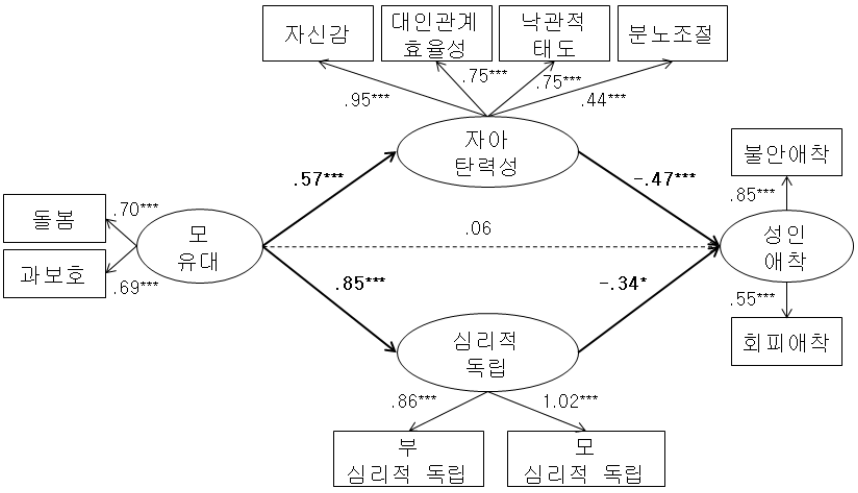

그림 5. 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연구모형 3). 주. * p<.05, *** p<.001.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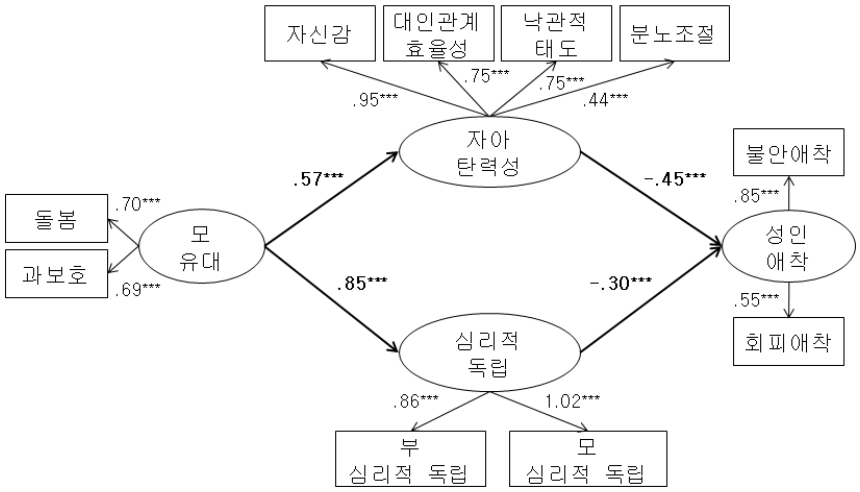

그림 6.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연구모형 4). 주. *** p<.001.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그림 6의 매개모형(연구모형 4)을 살펴보면, 모와의 유대에서 자아탄력성(β=.57, t=8.10***)으로, 그리고 모와의 유대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으로의 경로(β=.85, t=9.53***)가 유의미하였다. 한편 자아탄력성이 증가할 때 (불안정)성인애착은 감소(β=-.45, t=-6.37***)하였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증가할 때 (불안정)성인애착 역시 감소하였다(β=-.30, t=-4.66***). 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42,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32, 모와의 유대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는

표 6. 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모형	경 로	B	β	S.E.	C.R.(t)
연구모형 3	모와의 유대 → 성인애착	.05	.06	.20	.26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4	-.47	.08	-5.57***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34	-.34	.17	-2.02*
	모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58	.57	.07	8.10***
	모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2	.85	.09	9.52***
연구모형 4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3	-.45	.07	-6.37***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30	-.30	.07	-4.66***
	모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58	.57	.07	8.10***
	모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2	.85	.09	9.53***

주. N=278. * p<.05, *** p<.001.

www.kci.go.kr

표 7. 연구모형 3, 4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모형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연구모형 3	모와의 유대 → 성인애착	.06	-.55	-.50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7		-.47	.43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34		-.34	
	모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57		.57	.32
	모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5		.85	.73
연구모형 4	모와의 유대 → 성인애착		-.51	-.51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5		-.45	.42
	심리적 독립 → 성인애착	-.30		-.30	
	모와의 유대 → 자아탄력성	.57		.57	.32
	모와의 유대 → 심리적 독립	.85		.85	.73

.73으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모형인 연구모형 4에서 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며, 모와의 유대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51로 자아탄력성이 성인애착으로 가는 전체효과 -.45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으로 가는 전체효과 -.30보다 크기 때문에 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혼여부에 따라서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성인애착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결혼여부에 따

표 8. 결혼여부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과 t값

변수	기혼여성 평균(SD) n=124	미혼여성 평균(SD) n=154	전체집단 평균(SD) n=278	t
부와의 유대	3.64(.64)	3.70(.58)	3.67(.60)	.90
모와의 유대	3.77(.70)	3.83(.57)	3.80(.63)	.91
자아탄력성	3.65(.56)	3.59(.56)	3.61(.56)	-.92
심리적 독립	3.55(.68)	3.47(.59)	3.50(.63)	-1.07
성인애착	2.21(.55)	2.40(.55)	2.32(.56)	2.94**
불안애착	2.22(.65)	2.49(.63)	2.37(.65)	3.60***
회피애착	2.20(.65)	2.31(.64)	2.26(.65)	1.50

주. N=278. ** p<.01, *** p<.001.

www.kci.go.kr

라 성인애착과 하위변인인 불안애착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기혼여성(m=2.21)이 미혼여성(m=2.40)보다 이성과의 성인애착이 유의미하게 낮았다(t=2.94**). 이는 기혼여성(m=2.22)이 미혼여성(m=2.49)보다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왔다(t=3.60***). 즉 기혼여성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미혼여성의 애인과의 관계에 비해 덜 불안정하고, 정서적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나머지 부와의 유대, 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각각의 하위변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기혼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성인애착의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자녀유무에 따라 회피애착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m=2.32)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m=2.00)보다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회피적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t=-2.70**). 즉 자녀를 두어 양육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두지 않은 기혼여성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과 정서적 의존에 대한 불편함 혹은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외의 다른 변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 의뢰되는 초기 성인기 여성 내담자 중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도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유대와 친밀한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애착관련 최근 연구들은 애착의 세대 간 전수를 보고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아 다양한 요인들이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 혹은 유지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애착관련 정서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통찰능력이라 정의

표 9. 자녀유무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과 t값

변수	자녀있음 평균(SD) n=77	자녀없음 평균(SD) n=47	전체집단 평균(SD) n=124	t
부와의 유대	3.64(.66)	3.63(.60)	3.67(.60)	-.10
모와의 유대	3.75(.78)	3.78(.53)	3.80(.63)	.22
자아탄력성	3.68(.58)	3.60(.52)	3.61(.56)	-.75
심리적 독립	3.56(.66)	3.53(.71)	3.50(.63)	-.23
성인애착	2.25(.60)	2.14(.46)	2.32(.56)	-1.10
불안애착	2.18(.66)	2.28(.64)	2.37(.65)	.80
회피애착	2.32(.69)	2.00(.51)	2.26(.65)	-2.70**

주. N=278. ** p<.01

www.kci.go.kr

할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한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능력 등으로 정의되는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통찰력과 심리적 거리두기 능력 역시 이성관계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후반 일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유대가 직접경로로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경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구조 모형과 간접경로만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각각 설정하고 이들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가로 결혼과 자녀양육 등의 발달적 과제가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 결혼여부와 자녀유무가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그리고 성인애착에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와 모의 유대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는 정적상관을, 성인애착에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애정적 돌봄과 적절한 통제로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 능력으로 평가한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며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과 애정적 관계의 회피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의 성격적 특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원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담 장면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요인들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와의 유대보다 모와의 유대가 더 높아 어머니로부터 유의미하게 높은 애정적 돌봄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성인의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경로로 그 영향력의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탐색에 아버지-아들, 어머니-아들, 아버지-딸, 어머니-딸 등의 구체적인 관계별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성취할수록 (불안정)성인애착의 기준으로 가정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만한 가정환경, 그리고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권혜진, 2006; 이은미, 박인전, 2002; 장경문, 2003; 장진아, 신희천, 2006; 허정선, 현명호, 2005; Sroufe, Carlson & Sc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Herman-Stahl & Peters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Werner & Smith, 1992)과 청소년들(정애리, 유순화, 2008; Herman-Stahl & Petersen, 1996)이 부모 및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다(양수진, 2010; Kerns & Steven, 1996; Shaver & Brennan, 1992)는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애착이 성인애착과 밀접한 관계(강진경, 2001;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조영주, 최해림, 2001)가 있고,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서로 관련된 개념(송순, 박효인, 2006; 신미, 2006; 정윤경, 2004; Berman & Sperling,

www.kci.go.kr

1994; Kobak & Cole, 1994; Rothbard & Shaver, 1994)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한다.

둘째, 부와 모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것으로 가정한 모형과 간접경로만이 유의할 것으로 가정한 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와 모의 유대가 모두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부와, 모와의 유대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초기 주요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애착이론(강진경, 2001;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조영주, 최해림, 2001; Bowlby, 1988; Cassidy, 2001; Rice, Lopez, & Vergara, 2005)의 기본 틀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전수과정에서 부모와의 유대의 질로 예측되는 경로와는 별개의 성인애착 유형이 형성될 가능성(Cook, 2000; Overbeek 외, 2003)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였다. 성인애착 유형은 원부모와의 애착유형과 다를 수도 있으며, 개인의 애착관련 내적 작동모델이 가동되는 구체적인 경로는 매우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Cook, 2000; Lewis, Feiring & Rosenhal, 2000)을 감안하여 애착의 세대 간 전수과정을 매개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직접경로와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간접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모형의 적합도를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였다. 부와, 모와의 유대 모두 자아탄력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온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양수진, 2010), 여대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며(신미, 2006),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의 친밀성에 영향을 준다(정윤경, 2004)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은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조화진, 서영석, 2010)를 확인한다. 종합하면, 원부모로부터의 애정적 돌봄과 적절한 수준의 훈육적 통제는 성인애착의 질과 관련성이 있지만 그 과정을 중재하는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정서적 자율성에 개입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의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한 정서적 환경에서 자란 성인여성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면,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성과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정서적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에 대

www.kci.go.kr

한 부담감에 대한 자기 통찰을 증대시키는 것을 통해 성인애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친밀한 이성과의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그리고 분노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결과 결혼여부와 기혼여성의 자녀유무는 부모와의 유대, 자아탄력성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성인애착 수준, 특히 불안애착의 수준이 낮게 나왔다. 즉 기혼여성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미혼여성이 애인과 가지는 관계에 비해 덜 불안정하며 특히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요즈음의 현실과 모든 연령에서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를 보고한다는 연구결과(Schone & Weinick, 1998)를 고려할 때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이성관계와 연인관계의 차이가 있는지 즉, 결혼여부 혹은 만족도에 따라 원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불행한 결혼생활이 불안정한 애착의 대물림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원부모와의 갈등적 상황의 영향을 벗어나 회복된 안정형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 회피애착 수준이 낮게 나왔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의존에 대한 욕구를 불편하게 지각하는지 알아볼 필요를 시사한다. 자녀의 출생이 결혼만족도를 낮추고(Barnett & Shen, 1997; Story 외, 2007) 이는 특히 여성에게 더 영향이 크고, 그 원인이 자녀의 출생 후 늘어나는 집안일과 양육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현상이라는 연구결과(Barnett & Shen, 1997)를 감안할 때, 자녀출산이나 양육이 성인애착 특성이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과 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배우자와의 가사나 양육의 분담에 대한 논의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기혼여성의 친밀감과 정서적 의존에 대한 회피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후속연구에서 탐색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자녀에게 부모의 불안정 애착이 전수되는 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과 자녀출생이 성인여성의 애착패턴의 활성화 혹은 세대 간 전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어떤 구체적 심리적 과정을 통해 그 영향이 전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부와 모와의 유대감이 자아탄력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미치는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이 핵심 발달과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결혼, 자녀 양육과 같은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경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0대~30대 후반 성인초기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확

www.kci.go.kr

인하였다. 상담 장면에서 친밀한 이성관계의 어려움과 초기 양육적 대상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의 문제가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부모와의 해묵은 갈등에 대한 통찰을 꾀하고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정서조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등의 자아기능을 증진시키며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친밀한 이성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상담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기반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성인애착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표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에 의존한 제한점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특히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정신화 능력에 관여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평가도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또한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성인초기 여성의 부모와의 유대와 성인애착의 관계를 결혼, 결혼만족도, 이혼, 혹은 재혼 등의 구체적인 영향 요인들을 감안하여 탐색한다면 여성 내담자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개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연구기반(evidence-based)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강진경 (2001). 아동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 자아 개념, 성인기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권혜진 (2006).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 인간발달연구. 13(4), 17-32.

김영혜, 이지연, 김낭영 (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걱정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18(2), 91-104.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송순, 박효인 (2006).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3(2), 5-25.

신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6.

양수진 (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

www.kci.go.kr

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이선미, 전귀연 (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7). 93-107.

이수현,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이윤영, 전효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성인애착유형과 사랑유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99-121.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장휘숙, 이영주 (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17-32.

정애리, 유순화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8(1), 139-160.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윤경, 김재엽 (2005).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미혼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2. 70-103.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허정선, 현명호 (2005).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과 표출정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37-51.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 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Barnett, C., & Yu-Chu, Shen (1997). Gender, High and Low-Schedule-Control Housework Task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8*, 403-428.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W.,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 (p.3-28). New York: ther Guiford Press.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www.kci.go.kr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1-155.

Cassidy, J., & Shaver, P. R. (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dford Press.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85-294.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te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49-665.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Hoffman, J. A., & Weisse,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Lapsley, D, K., & Power, F. c. (de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onger-Verlag.

Kerns, K. A., & Steven,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2.

Kobak, R., & Cole, H. (1994). Attachment and meta-monitoring: Implications for adolesent autonomy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 -ology: Disorders and Dysfunctions of the self.* vol. 5, 267-297.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liz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84-495.

Lewis, M., Feiring, C.,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 707-720.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503-531. New York: Guilford.

www.kci.go.kr

Mikculincer, M., & Shaver, P., Cassidy, J., & Berant (2009). Attachment-related defensive processes in Obegi, J. H. & Beranrm E. (eds.) *Attachment theory and clinical work with adults,* 293-327. New York: Guilford Press.

Miller, Patricia, H., (2002). *Theories of developmental pscychology*, 4th ed, New York: W. H. Freeman.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M. E.,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31-71. New York: Guildford press.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159-169.

Schone, B. S., & Weinick, R. M. (1998). Health-related behaviors and benefits of marriage for elderly persons. *The Geronthologist*, 38, 168-627.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Bulletin, 18, 536-545.

Sroufe, L. A., Carlson, E., & Sc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m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Story, T. N., Berg, C. A, Smith, T. W., Beveridge, R., Henry, N. J. M, & Pearce, G. (2007). Age, marital satisfaction,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positive sentiment override in middle-aged and older marred couples. *Psychology and aging, 22*(4), 719-727.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allin, D.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외 역). 서울, 학지사. (2007년 원저 출판).

1차원고접수 : 2011. 7. 26.
심사통과접수 : 2011. 9. 16.
최종원고접수 : 2011. 9.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Vol. 16, No. 3, 331-355

Parental Emotional Bond and Adult Attachment: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Sunyoung Na **Christine Myunghee Ah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otional bond and insecure adult attachment. Differences between marital status and presence of children on key variables were also analysed. The results, based on survey responses from 278 women in their late 20's and 30's indicat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al 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bond with both father and mother and insecure adult attachment.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with female clients in their early adulthood, who report difficulties in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ir romantic partners and have a history of problematic parent-child relationship. Interventions intending to improve self-confidence, efficiency of personal relations, optimism and anger management skills as well as maintain psychological distance from conflicts with parents may be effective strategies to implement. Additional findings indicated that married women in the study had a lower level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particularly, anxious attachment, compared to single women. Married women with children had a higher level of attachment avoidance compared to women without children. Whether marital status helps with decreasing attachment anxiety or whether having children contributes to increasing uneasiness about expressing intimacy or dependency on their husbands needs to be explore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include if marriage and child-rearing affect the activation and mentalization of attachment related cognition and emotions among women.

Key words : Parental Emotional Bond, Ego-Resiliency, Psychological Separation, Adult Attachment

www.kci.go.kr